

動力資源部

에너지節約 계속 노력

全대통령, 「原電 安全研究·點檢토록」지시

全斗煥대통령은 2월 11일 청와대에서 動力資源部の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動力資源부와 관련 산하기관은 國際에너지市場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하고 「에너지 절약은 원가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企業은 여유가 있을때 施設改替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노력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全대통령은 「原子力發電所의 증설에 따라 그 安全問題가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國內外 전문기관에 안전문제에 대한 研究를 의뢰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動力資源부의 올해 主要業務計劃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價格管理

올해 세계에너지환경이 급격히 변화, 국제 원유가격이 올라갈 경우 國內油價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대책을 강구 國際油價가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석유사업기금징수액을 현행 배럴당 8달러69센트에서 50센트로 인하하고 21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2단계로 원유수입관세를 현행 24.5%에서 1%로 낮추며, 21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활용, 국내유가인상 요인을 완전히 흡수한다.

電氣料金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조정한다.

석탄과 연탄값은 광산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서민의 부담을 고려, 소폭 인상한다. LPG

(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의 가격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인도네시아와의 협상결과 인하요인이 생기면 도시가스 가격을 인하한다.

◇ 에너지供給能力的 提高

석탄생산 증대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탐사비를 지원, 가체매장량을 확대하고 347억원의 자금을 지원, 무연탄생산량을 지난 해의 2,400만톤에서 2,430만톤으로 늘린다.

電力供給能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6基의 火力發電所 수명을 늘리고 核燃料成型力工技術의 國産化를 추진하며 太白등 4개 水力發電建設地點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다.

올해 中東産 원유의 의존도는 60~70%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 제도도 개선, 금융비지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운송비 차등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外國産무연탄 도입물량은 지난해의 375만 8천톤에서 380만톤으로, 유연탄 도입물량은 1,755만 7천톤에서 1,814만 4천톤으로 각각 늘린다.

올해 국내 대륙붕개발을 위해 131억원의 석유사업기금을 지원, 제 3 광구의 분리탐사와 제 4 광구 또는 제 6 광구의 기초추탐사작업을 실시한다.

올해 新·再生에너지개발정책은 기술개발체제의 확립에 두고 연구개발비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기술도입과 연구개발사업에도 석유사업기금 50억원을 지원한다.

◇ 에너지節約利用效率의 向上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액을 지난해의 2,853억원에서 2,913억원으로 늘린다.

10톤이상의 대형보일러에 대한 自動制御設備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가정용보일러 시공확인제도를 확립한다. 에너지절약형 소형승용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한다. 서울과 城南에 열량계부착 시범단지를 운영, 사용열량에 따른 난방비징수방안을 확립한다. 오는 3월부터 5억 2천만원을 들여 에

너지센서스를 실시한다.

◇ 國內鑛業 및 에너지産業 育成

오는 3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발족시켜 한계탄광의 정리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내채탄여건에 맞는 무인채탄기의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金생산량을 지난해의 125kg에서 225kg으로 늘리고 고령도 등 요업원료광물의 공급능력을 제고시킨다.

科學技術處

原電技術自立을 촉진

核廢棄物處理場도 建設

全斗煥대통령은 2월 12일 果川종합청사에서 科學技術處의 금년도 業務計劃을 보고받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경제환경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發展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작년도에 마련된 2000년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科學技術處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研究人力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科技處가 추진해온 國策研究開發事業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를 엄선해서 한정된 예산과 人力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과 외화가득물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기계류와 부품, 그리고 소재를 하루 속히 國産化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製品的 質과 性能을 좌우하는 금형·공구·열처리·도금·염색 등 소위 생산현장기반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新素材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해당기업과 발명가에게 특혜를 주도록하

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아울러 지시를 하였다.

科技處가 추진해 나갈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國策研究開發事業의 本格化

기계류·부품·소재의 國産化와 관련, 올해 125종의 개발기술을 선정하여 157억원을 투입, 政府와 民間企業이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988년까지 모두 879억원을 들여 초고집적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초고집적반도체의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試製品을 제작, 생산한다.

컴퓨터技術開發에는 1990년까지 335억원을 투입, 행정전산망용 主電算機를 國産化하는 한편 이 기간중 32~64비트용량의 슈퍼미니컴퓨터를 개발함으로써 1991年 以後에는 연 2천대의 슈퍼미니컴퓨터를 國産으로 供給할 계획이다.

이밖에 「海洋開發基本法」을 제정 해양 개발을 추진하고 텅스텐·몰리브덴 등 첨단소재용 자원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高級科學技術人力養成과 基礎研究振作